

■ 자격명: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 소개말 (시험에 응시하게 된 동기, 시험 준비 기간 등을 서술)

안녕하세요. 2019년에 2차 시험을 본 55회 변리사 시험 합격자입니다. 수험생일 때 공부의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수기를 보고 용기를 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 수기가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험에 응시하게 된 동기

제가 시험에 응시하게 된 계기는 직장을 얻는다든지, 취직 등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 전 제가 즐겁게 하는 일이 뭐라도 있기를 바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전공 공부엔 흥미가 적었고 결국 2학년까지 무료하게 학교를 다니다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1년이 지나자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심심했기 때문에 뭐라도 할 것을 찾았습니다. 전역까지 1년이 남았기에 예전 때부터 이름만 들어봤던 변리사 시험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역하자마자 1차 시험을 치른다면 설령 1차 시험에 불합격해도 군대에서 시간을 쓴 것이기에 남는 장사라 생각했습니다. 즉, 저는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 수험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

시험 준비기간은 첫 번째 1차 시험이 2015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차 시험이 2016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다시 두 번째 1차 시험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또 2차 시험이 2018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였습니다.

대략 3년 걸렸습니다.

■ 차수별, 과목별 준비방법 (공부한 방법, 합격 득점 요인 분석 등을 서술)

동차(2016년 3월~7월)

제가 동차일 때는 워낙 경험이 없고, 공부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저 남들이 학원 다니는 대로 다니고, 인강을 들으며 내용을 익히는 것이 다였습니다. 답안지 작성이 중요하단 얘기는 들었지만 대충이라도 쓸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독서실을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보니 7월이 다가왔고 시험도 그냥저냥 봤었습니다. 2016년의 제 동차 점수는 그저 과락은 면했다 수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이렇게 두서없고, 기본기 없이 공부에 시간만 썼음에도 이게 기득 때 도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막 2차 시험에 진입하신 분들은 당연히 학원에서도 하위권이고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 공부에 흥미도 잃고 재미 없어지겠지만, 계속 동차 때도 공부는 하셨으면 합니다.

동차 때 아무것도 안 하면 기득 때에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고, 처음부터 해야 하고, 어려워서 공부가 재미없게 됩니다. 동차 때 뭐라도 공부하면 기득 때 공부가 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답안지가 작성되고, 수월해집니다. 어차피 8월이 되어 시험이 끝나면 쉴 시간은 많습니다. 동차 때에는 기득 때 할 공부를 미리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운이 따르면 생동차로 합격하는 것이니 이것만큼 낮은 리스크에 하이리턴도 없습니다.

기득(2016년 9월~2017년 7월)

8월에 휴식을 취하고 기득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2차 시험이 끝나고 얼마나 빨리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다시 시작하는 공부를 다음 해로 미룬다면 7월까지 남들보다 뒤쳐지고, 뒤쳐지니까 공부가 어렵고 흥미 없고, 슬럼프의 위험을 겪으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는 9월부터 일찌감치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너무 처음부터 달리지는 마시고 톡톡히 쉬면서 공부하고 다음 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공부 방식은 답안지 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저녁을 먹고 독서실에 내려간 직후엔 매일 답안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1시간씩 학원 문제를 구해서 실제 답안지 8페이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11월부터 2시간씩 작성했습니다. 2017년 3월까지 2시간씩 작성하다가 4월엔 3시간, 5월엔 4시간씩 작성했습니다. 처음엔 팔이 아팠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니 4시간 연습하다 실전처럼 2시간 쓰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6월엔 다시 3시간, 7월엔 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니 시험 보면서 발생하는 각종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불의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뼈대 있게 작성이 가능해지고, 아는 내용일 때 16페이지를 초과해서 작성한다던가, 극단적으로 짧은 시간이 남았을 때에도 문제를 푸는 요령 등을 익혔습니다.

이때에는 아직 선택과목이 PF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꽤 많은 시간을 회로이론에 쓴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로 점심 먹고 나른한 시간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남들의 노력보다 살짝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017년의 회로이론시험은 고난도로 기출 되었습니다. 비록 그렇다 해도 시험장에서 멘탈을 잡고 뭐라도 작성해야 했었습니다. 그러지 못했었고 전 결국 나머지 3법만으로는 상당히 상위권인 점수였지만 회로이론 한 과목을 너무 못 봐서 2017년에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1차 시험(2017년 11월~2018년 3월)

11월에 불합격 발표를 듣고 다음날부터 1차를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말의 고민도 없이 다시 도전했습니다.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삼법과목을 어느 정도 봤기에 PF 제도로 바뀐다면 그래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도 했습니다.

만약 3시를 위해 다시 1차를 볼 생각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영어성적을 다시 따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한참 전에 공부한 내용을 전부 공부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시겠지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다 까먹은 것 같아도 민법조차 보다 보면 기억이 다시 납니다.

조언 드리자면 특허법, 상표법조문 암기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2차 땀 법전이 있어 안 외웠지만 은근히 1차에선 조문이 한 글자만 달라져도 내용이 확 바뀌어서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 과목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과목을 다 버리지 않고 했기에 수월하게 2016년의 1차와 3시 도전 때의 1차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커트라인보다 10점을 넘게 받았기에 1차 합격자 발표 전에도 안심하고 3시 2차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2차 시험(2018년 3월~2018년 7월)

2차 공부를 오랜만에 하게 되었지만 기본서와 사용했던 암기장 등을 회독하면 다시 내용이 기억납니다. 여기에 매일 2시간씩 답안지 작성을 하니 모든 감각이 1개월 내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삼시 때엔 기득 때와 특별히 공부 방법에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은 2017년에도 상위권 점수가 나왔기에 공부 방법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만 PF로 바뀌었음에도 회로이론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회로이론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회로이론이 결국 전년도와는 달리 상당한 고득점이 나왔고, 삼법과목도 적당히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중 어느 하나가 특출난 점수는 없었지만, 특별히 망친 과목도 없었습니다. 망친과목이 없으니 합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수험생활 전반의 공부 방법

일단 전술한 대로 저의 공부 방법 특징은 '많이 쓰기'입니다. 암기할 시간은 줄어들지만 전 암기에 약해서 답안지 쓰기 스킬로 이를 보완했습니다. 도 암기하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아서 '차라리 몇 시간 답안지 쓰자, 그러면 몇 시간 공부하는 것이다' 마인드로 했습니다. 이 공부 방법의 특징은 각 과목 실력이 무난해진다는 것입니다. 법 과목의 어느 파트에서 나오더라도 그 문항을 망치진 않을 것입니다. 특출하게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없을지라도 망친 과목 또한 없어서 전체적으로 안전한 점수가 나옵니다.

전 무엇인가 만드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미 시중에 많은 내용을 압축한 암기장 등이 있고 교재들이 있으므로 개인만의 암기노트는 안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노트의 완성 때엔 뿌듯하겠지만, 공부할 시간만 날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택과목인 회로이론은 그저 이론을 습득한 뒤에 많이 풀어봤습니다.

■ 자격 취득 후 진로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 혹은 예정 진로에 관해 서술)

아직은 제가 대학교 학부생이라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저 어학에 신경 쓰고 졸업해서 특허사무소에 취직할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 합격 후엔 특허사무소들에 입사를 하시며 변리사로서 진로가 다양해지는 것은 사무소에서 실력을 쌓고 시간이 몇 년이 지난 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득이나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 변리사는 변화에 빨리 반응하고, 자신의 진로를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격증이라 생각합니다.

■ 기타 조언 등 (수험 기간 중 하루 일과, 스트레스 또는 슬럼프 극복 방법, 응원의 한마디 등을 서술)

전 하루에 시간 확보를 수월히 했습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엔 독서실 자리에 앉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서 오전에 5시간을 공부할 수 있다면 점심 먹고 5시간만 더 공부해도 하루 10시간이고 7시간만 더 공부해도 하루 12시간입니다. 오후에 살짝 공부가 아닌 일을 하더라도 공부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합니다. 전 12시 전에 자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이것이 매일 계속되면 관성이 붙어서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전 의지가 약한 사람이지만 관성이 붙으면 오히려 관성을 깨는데 힘이 들고 저절로 공부하러 가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슬럼프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2차 시험을 공부할 땐 하루라도 공부를 아예 안 한 날은 없습니다. 저만의 비결이 있습니다. 전 항상 금요일 오후엔 철칙같이 쉬었습니다. 인터넷을 하건 친구를 만나건 했는데 특히 친구들을 만난 것이 고시 생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평소에도 점심 먹고, 혹은 저녁 먹고 독서실에 가기 전에 휴대폰을 보면서 좀 쉬었습니다. 가끔 유혹에 굴복해서 오래 쉬어도 괜찮았습니다. 이미 오전에 4~5시간은 공부해서 독서실에 좀 늦게 가도 하루 순공부시간 확보가 가능하기도 해서 타격이 없었습니다.

수험생에게 휴식은 철저히 합격을 위한 것입니다. 즉, 공부를 위해 쉬는 것입니다. 전 가끔 좀 과하게 쉬었다 싶을 땐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나 잘 쉬었는데 슬럼프에 걸리는 것은 사치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며칠 동안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등의 슬럼프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합격 전에는 불안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신의 길고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고, 인간관계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시험인데 불합격은 상상도 하기 싫을 겁니다. 즉, 이 시험엔 걸린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좀 황당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위를 잘 살펴보십니까? 저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매일 건너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길을 건너는 것뿐인데 다쳐서 몇 년이고 입원할 수도 있다면 저희 횡단보도 건너는데도 많은 것을 걸었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이고 많은 것이 걸려있지만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덤덤하게 건넌다는 걸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기껏해야 1년을 더 공부한다거나 다른 진로를 찾게 된다는 것에 덤덤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의 특이한 생각이지만 부담감을 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험을 처음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을 때의 두근거림이 잊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격했을 때보다 큰 설렘이었습니다. 그저 제가 도전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점, 뭐라도 흥미를 가지고 노력하고 파고들 수 있다는 점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변리사 시험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너무나 빛나는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공부하던 시절을 돌이키면서 그래도 빛나던 시절이었다고 기억하실 날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